

한국 축구,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 첫 승 사냥 나선다

월드컵 최종예선 3·4차전 일정 확정

한국 축구가 5년 만에 난공불락의 이란 축구 성지 ‘아자디 스타디움’ 공략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기간 치러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 4차전 일지와 장소를 28일 발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내달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3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이어 이란으로 건너가 12일 오후 10시 30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강적’ 이란과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란 원정은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는 길에서 최

10월 7일 안산 와스타디움서 시리아와 홈경기

12일 이란 테헤란 원정 ... 10만 경기장 1만명 만 입장

대 고비라 할 만하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확연하게 밀린다.

게다가 이번 원정 경기를 치를 아자디 스타디움은 한국에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곳에서 열린 A대표팀 간 경기에서 한국은 한 번도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다.

가장 최근에 두 팀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맞대결한 것은 2016년 10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다. 이 경기에서도 한국은 사르다르 아즈문에게 전반 25분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졌다. 이후 한국은 이란과 치른 2차례 홈 경기에서 모두 비겼다.

극성스럽게 악명높은 이란 축구팬들의 응원 소리가 예전보다 작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최대 10만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코로나19 때문에 1만 명만 입장한다. /연합뉴스

K리그1 파이널A 경쟁 ... 광주FC는 ‘B그룹’ 확정

광주, 3경기 모두 이겨도

A그룹 진출은 불가능

A와 B를 놓고 K리그1 승점 싸움이 뜨겁게 전개된다.

K리그1은 현재 32라운드를 소화했다. 파이널라운드에서 앞서 이제 2라운드 일정만 남아있다. 10월 2-3일 33라운드 일정이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순연됐던 24라운드 경기가 10월 24일 동시에 열린다.

12개 팀이 각축을 벌이는 K리그1에서 남은 시즌 ‘자리’가 확정된 팀은 5개다.

‘승점 60’ 고지를 넘은 1위 울산(승점 61)과 2위 전북(승점 60)에 이어 3위 대구(승점 48)가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A 그룹 자리를 확정했다.

반대로 강등권에서 생존 경쟁 중인 11위 광주

(승점 29)와 10위 서울(승점 33)은 B그룹이 됐다. 광주와 서울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A그룹으로 올라갈 수 없다.

강원(승점 27)은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27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은 만큼 파이널A 가능성을 남겨뒀다.

파이널라운드 돌입까지 2라운드를 남겨둔 시점에서 파이널A 진출 가능성 팀은 7개 팀으로 2016 시즌(7개 팀) 이후 가장 많다.

일단 자력으로 파이널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위 수원FC(승점 45)와 5위 제주(승점 40)만 남겨뒀다.

두 팀이 승점 46점을 만들면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A에서 뜨거운 가을을 보내게 된다.

수원FC는 10월 2일 안방에서 울산을 상대로 파이널A 진출 확정에 나서게 된다. 무승부만 기록해

도 A그룹이 확정된다.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10월 24일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어 5위 제주(승점 40)·6위 수원(승점 39)·7위 포항(승점 39)·8위 인천(승점 37)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제주·인천·성남은 순연 경기 포함 3경기씩 남겨두고 있다. 성남(승점 34)은 경우의 수는 남겨뒀지만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

일단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한다. 승점 40으로 기회를 얻게 되더라도 득점을 계산하면 확률이 떨어진다. 성남은 올 시즌 K리그1에서 가장 적은 27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의 파이널A 확률은 시시각각 달라질 전망이다. 29일 포항전을 시작으로 전북(10월 2일), 인천(6일), 제주(10일), 광주(17일)와 밀린 경기를 치른 뒤 24일 서울과의 최종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궁 세계선수권 금2·동1 ... 꽃을 든 안산

1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 양궁 여자 대표팀 안산(광주여대)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하며 꽃을 들고 있다. 안산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혼성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휴식 ‘반격의 가을’ 준비



박찬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엔트리서 빠져 체력 고비 넘어 한단계 더 성장할지 관심



한숨 쉬어가는 박찬호가 반격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28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동은 줬다. 긴 부상에서 벗어난 투수 전상현이 올 시즌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됐고, 고졸 2년 차 박민이 올 시즌 두 번째로 콜업됐다.

그리고 내야수 김규성과 박찬호가 엔트리에서 빠졌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말소다.

앞서 1차 접종 당시 휴식 없이 경기를 뛰었던 박찬호는 이번에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 시즌 박찬호는 ‘타올 최하위’라는 씁스러운 타이틀을 차지했다.

데뷔 후 가장 많은 141경기에 출전한 박찬호는 531타석에서 107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율 0.223에 그쳤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수치는 나아졌다.

102경기 382타석에서 80개의 안타를 생산하면서 타율 0.240, 1개의 홈런 포함 48타점을 올리면서 27일 현재 김선빈·최형우와 팀 내 타점 1위다.

하지만 지난 시즌 ‘경험치’를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다. 또 2019년 ‘도루왕’ 타이틀을 생각하면 올 시즌 6개에 머문 도루 수치도 아쉽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박찬호 답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잇달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8일 KT전에서 2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후반기 박찬호의 실책 페이스가 가파르다. 벌써 16개의 실책을 남기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했던 2019년 기록과 동물을 이뤘다.

박찬호에게 이번 휴식은 올 시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복귀 시즌이었던 2019시즌부터 부상 없이 자리를 지켰던 박찬호는 지난 6월 15일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 도중 슬라이딩 캐치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강제 휴식에 돌입했다.

박찬호는 올 시즌 101경기(선발 99경기)에 나와 872.1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리그 전체 7위. 팀에서는 915.1이닝(110경기·선발 104경기)을 소화한 최원준에 이어 2위다.

지난 시즌에는 1165이닝을 뛰면서 전체 3위, 팀 내 1위였다.

체력 부담 많은 유격수 포지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경험이 박찬호의 귀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시즌 결과가 중요하다. 체력 고비를 넘고 한 단계 더 성장할지, 올 시즌도 아쉬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휴식 이후 박찬호의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탱크’ 최경주 귀국 ... “바쁘다 바빠”

PGA 챔피언스투어 우승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KPGA 대회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참가

‘탱크’ 최경주(61)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자마자 귀국길에 올라 이번 주엔 대회 ‘주최자’와 ‘선수’로 국내 필드를 누빈다.

3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파 72·7217야드)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주관 대회인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은 최경주가 주최하는 대회다.

국내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2011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설한 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최경주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 인터내셔널 팀 부단장으로 참가해 개최가 어려웠던 2015년을 제외하곤 매년 대회가 열렸다.

최경주는 지난해엔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가 2년 만에 돌아온다.

특히 최경주가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직후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

최경주는 27일 막을 내린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스투어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PGA 챔피언스투어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남겼다.

1999년 11월 웰리파잉스쿨을 거쳐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 2002년 컴팩 클래식에서 한국인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역사를 만들어 온 그는 챔피언스투어에도 한국인 최초로 뛰어든 첫 우승을 달성했다.

28일 ‘금의환향’한 최경주는 본격적인 대회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최경주는 2019년 대회 때 공동 3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시즌 4개 대회를 남긴 코리아투어의 막판 경쟁은 이번 대회에서 분수령을 맞이한다.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4940.56점)와 상금 1위(6억3493만원)를 질주해 온 김주형(19)이 PGA 2부 콘페리투어 1차 웰리파잉 토너먼트 출전으로 불참하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베테랑 박상현(38)은 직전 대회인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에 이어 2연승과 함께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 도약을 노린다.

KPGA에 따르면 김주형에 이어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2위(4764.19점)인 박상현이 이번 대회를 단독 22위 이상의 순위로 마치고 김주형을 앞지르게 된다. /연합뉴스